

‘幸福을 나누는 아이들’

장애아동시설 ‘노아의 집’, 노아사랑의 밤



장애아동시설 노아의 집은 ‘행복을 나누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노아사랑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소재한 중증장애아동 요양시설인 노아의 집(원장 김창연)은 최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박은국 포천시장과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노아사랑의 밤’을 개최했다.

“행복을 나누는 아이들”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아동 50여 명이 시립종사자 30여 명과 함께 두드려댄스, 팝댄스 등을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애아동들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해 비장애인과 다를 것 없는 솜씨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장애아동들을 편견 없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읍·면·동 대표 전화번호’ 부여

포천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화중 없이 언제나 통화가 가능한 읍·면·동 사무소 대표전화번호를 설치 운영한다.

신설 대표번호는 소흘읍에서부터 신단동에 이르는 14개 읍·면·동에 각각 538-3901부터 538-3914번까지가 배정됐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민원부서에 전화가 집중돼 통화 중인 경우가 발생했지만, 모든 민원전화를 직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신설 대표번호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 대표번호 부여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은 물론 업무처리 분담을 통한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일반 대표전화번호와 신설 대표번호가 병행 운영되나 4월 1일부터는 신설 대표번호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촌1부서 姊妹結緣 농촌사랑 실천

포천시보건소와 소흘읍 이동교3리 자매결연식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3리(이장 유경석)와 포천시 보건소(소장 정연오)는 최근 마을주민과 보건소 직원, 노인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교3리 마을회관에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을 통해 포천시 보건소는 앞으로 이동교3리에서 무료진료와 농촌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등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천시는 공무원부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체험하고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시청 내 22개 전 부서가 참여하는 ‘1촌1부서 자매결연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3리와 포천시보건소는 1촌1부서 자매결연식을 맺고 무료진료와 농촌일손돕기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장애인 전문적인 치료 가능

포천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개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 한성섭)는 최근 포천시 신읍동 81-2번지에 소재한 백천빌딩 4층에 포천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재활치료교육센터는 언어, 인지, 미술, 놀이, 음악, 작업, 운동 등의 전문치료를 통해 발달장애 및 정신

장애 아동들의 인지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재활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최소한 성인 이후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원하는 비영리 특수교육시설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차상위 계층은 일반인의 50% 비용으로, 일반인 역시 타 병원에 비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센터 개소로 그간 재활치료 전문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포천지역 장애아동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 문의 : ☎ 031) 536-1421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청사부지 소유권분쟁서 승소해

141억 3천 5백만 원의 시 재산 보존 가능

포천시가 약 2년여에 걸친 청사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41억 3천 5백만 원의 시 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시비가 된 땅은 포천시 소유로 돼 있는 신읍동 58-2번지 시 청사 본관부지와 경찰청 청 소유로 돼 있는 신읍동 59-4번지 시 청사 별관부지 등 모두 2필지 1,443평으로, 2004년 5월 민 모 씨(66·성남시 정자동)가 포천시를 상대로 시 청사부지 9,568㎡ 가운데 자신의 상속지분 4,769㎡(1,443평)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유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 모 씨는 소장을 통해 1914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시한 토지조사부 기록에 상기 토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민 모 씨 소유로 돼 있으므로 정당한 법률적인 원인이 이루어진 포천시 및 경찰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청사 부지 중 포천시 소유로 돼 있는 본관부지(58-2번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별관부

지(59-4번지)에 대해서는 원고 민 모 씨에 대응할 만한 권리 추정력이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패소할 경우 청사를 내줘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포천시는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6일자 조직개편 시, 소유권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재산보호부서’를 신설했으며, 전직 공무원 등 민간인 6인이 참여하는 ‘시 청사부지 소송사건 자료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시 청사부지를 지키기 위한 포천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경찰청 소유의 별관부지에 관한 일제시대 ‘국유재산 관리대장(건축물 등재 현황)’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 시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이 서류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돼 11월 2일자로 포천시가 승소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승강기 관리자 安全교육

포천시 32개 公同주택 승강기 관리자 대상

포천시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최근 포천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소흘읍 우정APT 등 포천시역 32개 공동주택의 승강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편리한 수직 교통수단인 승강기가 전국적으로 32만 대를 넘어 서서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안전규칙 미준수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역시 계속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

울동부지원은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기계설비 이론, 사고 사례 등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평상시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도 참석한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동결기를 앞두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관내 32개 공동주택 승강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화장실의 아름다운 변신!’

포천시, 명성산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

포천시가 휴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관광객과 등산객들로 붐비는 명성산 등산로 입구에 최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해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포천시가 청결은 물론이고 사용의 편리성과 공간미를 추구하며 조성한 ‘명성산 등산로 화장실’은 관광객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다.

실제 이 화장실은 외관부터 포천시의 꽃인 ‘포천구절초’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장식돼 있으며 밤에는 여기에 조명이 들어와 이용객들로 하여금 ‘과연 이곳이 화장실이 맞는가?’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포천시는 명성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했다.

또 실내내 깨끗하고 냄새가 없으며 음향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클레식음악이 흘러나와 쾌적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포천시는 앞으로 지역 내 공중화

장실을 이처럼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며 음향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클레식음악이 흘러나와 쾌적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사랑 내사랑 미팅행사’ 열려

포천지역 미혼 공무원과 교사,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미팅 행사가 9일 포천시 신북면 아도니스 호텔에서 열렸다.

포천과 인연을 맺고 있는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편안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포천시청과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교육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및 교직원, 대학교 교직원 등 모두 남녀 30명씩이 참여했다.

이날 한 미팅행사 전문기관이 로테이션 대화미팅과 커피댄스, 스넵

딩파티, 공개프로포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커피 매칭 시간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지닌 1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참가자들은 또 조별로 ‘포천시 사랑의 CF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미팅행사는 미혼남녀들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포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젊은 피부, 직접 느껴보세요!”

포천시, 천연비누만들기 체험교육 실시

포천시가 영종면 금주2리 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천연비누만들기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노인들은 고운 가루비누(snap powder)에 노화방지과 보습 효과가 있는 인삼과 황토분, 녹차 우려낸 물 등, 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혼합해 각각 원하는 모양으로 천연비누를 만들었다.

교육을 주관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비누 만들기는 손을 움직이고 모양을 구상해야하기 때

문에 두뇌회전을 통한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지침, 요가, 우리민요배우기, 생활환원, 요리실습 등 다양한 내용의 은빛교실을 운영하고 문화체험, 화단조성, 소득활동을 지도해 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도 새로운 노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영종면 금주2리 노인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천연비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콘크리트 옹벽 아름답게 장식

포천시, 3억여원 투입 옹벽 개선사업

포천시가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이기 위해 삭막한 이미지를 주는 콘크리트 옹벽을 아름답게 단장한다.

포천시는 올해 6천만원을 투입해 옹벽 2개소에 대한 개선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작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각 1억 원, 2009년에 4천만 원 등 총 3억여 원을 투입, 관내 60여 곳의 시설물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아름답게 바꾼다고 밝혔다.

시는 보기 흉한 옹벽을 단장이던 갈이나 개나리 등으로 가려 막고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포천시는 옹벽 개선을 위해 2차례 현상공모를 실시한 끝에 지난 달 최우수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포천의 전통적 이미지와 세계로 향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12월 중에 베어스타운 건너편 47번 국도변 옹벽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옹벽에 환경 조형시설물을 부착함으로써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물론 옹벽의 고정관념을 바꾸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公務員 養老시설 자원봉사

포천시 환경지원과는 최근 근무가 없는 토요일을 이용해 관민면 초과리에 위치한 무료양로시설인 선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환경지원과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점심식사도 잊은 채, 동절기에 대비한 전기안전 점검 및 보온덮개 설치, 목욕봉사, 밥을 봉사하기 위한 밥 정리 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작은 정성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목욕 세제 등을 구입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 직원은, 봉사를 통한 기쁨은 체험해보지 않



포천시 환경지원과 직원들이 무료양로시설인 선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서는 알 수 없을 것이라며 밝은 표정으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씻어 내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혜택 놓치지 마세요!”

포천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의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의를 얻어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지목변경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이번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분할 지목변경에 따른 등록세는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나 직접 공무원이 수수료와 촉탁등기 수수료는 면제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련이 없음에도 기한이 지나 권리행사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특례법을 잘 숙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포천시 민원관 ☎ 031-538-2140)

김영복 기자